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종합뉴스 > 경제

한세광 POSTECH 교수,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 기기 투자유치

김민지 기자 승인 2019.08.27 19:06



▲ 한세광 교수

한세광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창업한 (주)화이바이오메드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영인프런티어, (주)인텍플러스와 지분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주)화이바이오메드는 (주)인터로조와 공동으로 World Class 300 과제 수행을 통해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주)화이바이오메드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주)영인프런티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노바아시아(Xinova Asia)와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당뇨병 및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인텍플러스와 광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인텍플러스는 독자적인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 관련 외관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바이오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투자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업화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화이바이오메드를 세계적인 바이오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10hyacinth@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